

반려 시민성의 윤리와 공존의 실천 - 각자도생에서 상생의 네트워크로 -

김 덕 삼 *

■ 국문요약

본 연구는 21세기 초연결사회가 직면한 문명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반려 시민성(companion citizenship)’을 제안하고, 그 철학적 토대인 ‘인문학적 연결이론’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만물이 실시간으로 얽혀 있는 환경 속에서 인간은 더 이상 고립된 원자적 개인이 아니며, 기후위기와 팬데믹 같은 전 지구적 재난을 공유하는 ‘재난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인간중심주의와 국가 중심 시민성은 이러한 초연결적 위기에 대응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도가의 기(氣) 사상과 불교의 연기론(緣起論) 등 동양의 연결 사상을 현대 네트워크 언어로 재해석하여 ‘노드(Node)-엣지(Edge)-장(Field)’의 구조적 모델을 정립한다. 이를 통해 존재를 ‘개별 실체’가 아닌 ‘연결 구조’로 파악하는 관계 존재론적 전환을 시도하며, 반려 시민이 실천해야 할 세 가지 책임 구조인 ‘존재 책임(노드)’, ‘관계 책임(엣지)’, ‘구조 책임(장)’을 논한다.

특히 본 연구는 휴머니티의 범위를, 인간을 넘어 자연 생태계와 인공지능(AI) 같은 기술적 반려 존재까지 확장하여 ‘우주적 시민성’으로

* 대전대학교 교수, E-mail: konglai@naver.com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 초연결망을 타고 전이되는 타자의 고통을 나의 문제로 인식하는 존재론적 공감은 미래 문명의 필수적 윤리이다. 결론적으로 반려 시민성의 실천은 개별 주체의 도덕적 결단을 넘어, ‘각자 도생’의 경쟁적 장을 ‘상생’의 네트워크로 재구성하는 ‘장의 변화’ 전략을 지향한다. 이는 기술 결정론에 함몰되지 않고 인류가 지속 가능한 공존 문명을 이룩하기 위한 근원적인 생존 전략이자 인문학적 실천 지표가 될 것이다.

주제어: 초연결사회, 연결이론, 반려 시민성, 재난공동체, 노드-엣지-장, 우주적 시민성, 관계 존재론

I. 서론

II. 연결이론과 반려 시민성의 존재론적 기반

III. 초연결사회와 재난공동체 윤리

IV. 결론

I. 서론

21세기 인류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을 토대로 ‘언제 어디서나(anytime, anyplace)’를 넘어 ‘무엇이든지(anything)’ 연결되는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라는 전례 없는 문명적 전환기에 진입하였다.¹⁾ 초연결사회는 단순히 기술적인 연결망의 확장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인간 존재의 양식과 사회 구조 전반을 바꾸는 새로운 생태계의 등장을 의미한다.²⁾

인간은 사람과 사람, 인간과 자연, 인간과 동물, 인간과 인공지능(AI 등 기술), 그리고 나아가 인간과 우주라는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연결 구조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존재한다.³⁾ 이처럼 ‘연결된

1) 『삼정KPMG Issue Monitor』 68 (2017), pp.3-16. 한편으로 기술혁명의 관점에서 초연결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자본의 본원적 축적과정에서 본다면, 농민이 토지에서 쫓겨나 이종의 자유를 얻었던 것과 같이, AI는 노동자를 공장에서 밀어내면서 ‘초연결’의 자유를 부여할 수도 있다. 박지웅, 「초연결사회 이전의 기존 연결 사회의 기원과 사회성격」, 『사회경제평론』 32-3 (2019), pp.7-8.

2) Dugsam Kim · Taesoo Kim, “Addressing Hyperconnected Society’s Challenges Through Laozi-Zhuangzi Thought,” *Religions* 16:6 (2025), pp.8-11.

3)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인간은 더 이상 독립된 원자적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원자는 연결 속에 모이고 흩어지며, 무언가를 만들고 해체한다. 이는 인간도 조직도 마찬가지다. 일반적으로 조직에서 인간을 원자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인간 그 자체도 원자 덩어리다. “원자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공기가 응축된 경이롭고 복잡한 덩어리다. 따라서

인간'은 타자와의 관계 밖에서 정의될 수 없고, 모든 존재는 다른 존재와 연결되어 살아가는 상호의존적 존재가 된다.⁴⁾

그동안 인간에 국한하여 생각한 연결은 확대된다. 인류가 직면한 위기 혹은 재난의 양상은 연결 속에 국지적 차원을 넘어 전 지구적 성격을 띤다. 기후위기, 감염병 팬데믹, 생태적 붕괴, 그리고 범용 인공지능(AGI)의 등장과 같은 문제들은 복잡한 네트워크를 통해 나비효과처럼 전 세계로 확산하며, 인류를 하나의 '재난공동체(disaster community)'로 묶었고,⁵⁾ 급기야 '초' 연결의 세계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였다.⁶⁾ 현대 사회의 '재난'은 개별적인 문제가 아닌 '공동체 모두의 문제'이며, '연결'은 재난의 '형성 원인'인 동시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열쇠'가 된다. 그러나 근대 이후 서구 문명을 지배해온 '인간 중심주의'와 국가 중심의 시민성 개념은 인류가 직면한 초연결적 위기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많다. 인간과 자연, 인간과 기술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고,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위기를 가속화하고 공멸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본 연구는 '반려 시민성(companion citizenship)'이라는 새로운 윤리적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반려 시민성이란 인간이 분리된 독립체라는 주관적 환상을 깨고, 만물이 근원적으로

대기의 성분이 변하면 우리 몸의 성분도 바뀐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커트 스테이지, 『원자, 인간을 완성하다』, 김학영 옮김 (서울: 반니, 2014), p.134.

- 4) 김덕삼 외, 『연결하는 인간: 초연결사회의 새로운 지평』 (서울: 문사철, 2025).
- 5) 김덕삼, 「재난공동체와 영성 교육」, 『한국학연구』 85 (2023), pp.29-57; 김덕삼·이경자, 「재난공동체에서의 '연결'과 '연결 교육」, 『한국학연구』 94 (2025), pp.39-63; Dugsam Kim·Taesoo Kim, "Applying Daoist Thoughts of Interconnectedness to Disaster Communities: Through the Lenses of Diaspora and Pluralism," *Religions* 15:8 (2024), pp.1-17.
- 6) '초' 연결이다. 이는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초'를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에 주력하는 인간 주체 중심의 근대적 사고를 넘어서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과거와 다른, 과거의 연결을 넘어선 '초' 연결로 볼 수 있다. 연결이라는 양적, 질적, 그리고 연결하는 대상적 측면에서 과거와 다른 '초' 연결의 시대가 열렸다. 김태수·김덕삼, 「초연결사회의 지성사적 조망: 근대시민사회와 초연결사회 관련 문제를 중심으로」, 『인문과 예술』 17 (2024), pp.211-220.

‘엄혀 있음’을 자각하는 ‘관계 중심적 시민성’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⁷⁾

여기서 ‘반려(伴侶)’는 “짝이 되어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지닌다. 지금은 반려동물이나 반려식물 등의 용어로 자주 사용되지만, 원래는 인생을 함께하는 배우자나 동반자를 반려자라고 칭하였다. 어쨌거나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의 조건이 되어주는 상보적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 논하는 반려 시민은 타자의 고통을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과 인공물까지도 공존의 파트너로 수용하는 존재를 지칭한다. 더하여 시민성의 정의가 고대의 도시 시민성, 근대의 국가 시민성, 현대의 글로벌 시민성을 넘어 미래의 ‘우주적(cosmic) 시민성’으로 진화해야 하는 방향성을 내포한다.

본 연구는 인문학적 변화이론(Humanistic Change Theory)에서 언급된 연결이론을 비롯하여, 시스템 이론(Systems Theory), 네트워크 이론(Network Theory), 복잡계 이론(Complex Systems Theory), 카오스 이론(Chaos Theory)과 같은 연결 관련 이론과 담론을 수용한다. 동시에 동양 철학적 관점을 융합하여,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인문 [humanity]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미래 공존 문명을 위한 윤리를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연결이론(Connectivity Theory)을 기반으로 반려 시민성의 철학 및 인문학적 기반을 정립한다. 둘째, 도가의 기(氣) 사상과 불교의 연기론(緣起論)을 비롯한 동양의 연결 사상을 통해 관계 존재론을 현대 네트워크 언어로 재해석하고 정당화한다. 셋째, 연결이론의 ‘node-edge-field’ 구조를 활용하여 반려 시민성의 구조적 모델과 세 가지 책임 구조(존재·관계·구조 책임)를 논한다. 넷째, 재난공동체와 우주 공동체(cosmic community)

7) 이에 대한 주장은 다음의 발표에서 처음으로 언급했고, 후속 연구를 통해 심화 확장하고 있다. 김덕삼, 「초연결사회의 실존적 위기와 세계시민성의 진화: 인문학적 연결이론을 통한 반려 시민성의 제안」, 『경희대학교 세계시민성·평화연구센터 창립학술대회 자료집』 (2026), pp.21-37.

개념을 통해 공존 윤리를 확장하고, 각자도생에서 상생의 네트워크로 전환하는 ‘장(field) 변화’를 포함한 실천 방안을 제안한다.

II. 연결이론과 반려 시민성의 존재론적 기반

1. 존재론적 기반

연결이론은 단순히 개별 요소의 나열이 아니라, 만물이 심층적으로 얽혀 있음을 규명하는 다차원적이고 입체적인 사고 체계이다. 이는 현상의 표면적 원인과 결과에만 주목하는 단편적 시각을 넘어, ‘원인의 원인’을 묻고 ‘결과의 결과’를 탐구하는 사유를 요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를 ‘인문학적 연결이론’이라 칭할 수 있다.⁸⁾ 이러한 인문학적 연결이론에 기초한 반려 시민성의 존재론적 기반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차원에서 논할 수 있다.

첫째, 연결 중심 존재론이다. 인문학적 연결이론은 개별 주체를 고립된 실체로 파악하던 근대의 원자론을 넘어서, 만물이 근원적이고 심층적으로 얽혀 있음을 규명하는 관계 존재론적 전환을 요구한다. 근대 시민성이 독립적이고 자기 완결적인 개인을 전제로 권리와 의무를 논했다면, 연결이론은 “존재는 곧 연결이다”라는 명제를 존재론의 제1원리로 삼는다.⁹⁾ 이러한 관점에서 ‘존재’는 고정된 속성을 지닌 대상

8) 김덕삼, 「연결이론의 정립과 활용 방향 초탐(初探)」,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 102 (2024), pp.503-537.

9) 이는 장자의 사상뿐만 아니라 현대 서양 철학에서 하이데거의 사상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즉, 인간의 존재 방식이 세상 속에, 타인과 더불어 공동으로 존재하는 것을 말한 “세계-내-존재(In-der-Welt-sein)”를 떠올린다. 인간은 특정한 시간과 공간, 상황 속에 ‘던져져’ 있고, 타인 및 주위 환경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존재 의미를 찾는지 모른다.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현존재(Dasein)를 ‘세계 안의 존재’로

들의 집합이 아니라, 상호작용과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둔 ‘관계의 네트워크’로 정의된다.

연결이론의 구조적 모델은 ‘노드(Node, 개별 존재) + 엣지(Edge, 관계 및 상호작용) + 장(場, Field, 연결 환경)’의 삼중 구조로 체계화된다. 노드는 인간을 포함하여 미생물, 사물, AI, 데이터 등 연결망을 구성하는 모든 개별 행위자를 의미하며, 엣지는 이들 노드 사이의 정보 흐름, 감정적 유대, 힘의 역학 등 상호작용의 방향과 강도를 나타낸다. 여기서 장은 노드와 엣지가 상호작용하는 전체적인 맥락이자 구조적 환경으로서, 주체의 사고와 행동을 규정하는 동시에 주체에 의해 재구성되는 역동적인 공간이다. 여기서 주체는 타자와의 관계 밖에서 정의될 수 없는 ‘연결된 존재’이며, 모든 존재는 실시간으로 연결 속에 교환하며 살아가는 상호의존적 생태계의 일부로 존재한다.¹⁰⁾

여기서 ‘장’의 의미는 확장된다. 장은 단순히 노드들이 배치된 물리적 공간(Space)이나 기술적 네트워크의 배경을 넘어, 주체의 직접적인 ‘경험’과 정서적 유대가 축적되어 특별한 의미를 획득하는 ‘장소(Place)’에 가깝다.¹¹⁾ 이는 반려 시민이 타자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관념적인 정보가 아니라, 내가 밭 딛고 서 있는 ‘장소’에서 타자와 함께 겪어내는 ‘경험’된 연결을 통해 비로소 실존적 무게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려 시민’의 정신은 ‘기술적 연결망’을 ‘정서적 공감’과 ‘경험이 살아 숨 쉬는’ 의미 있는

규정하였다. 현존재의 공간성과 사물의 공간성을 구별하면서, 하이데거는 현존재를 객관적으로 다루는 것, 곧 현존재를 다른 객체들 속에 있는 하나의 객체에 불과한 것으로 다루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역설한다. 에드워드 S. 케이지, 『장소의 운명: 철학의 역사』, 박성관 옮김 (서울: 에코리브르, 2016), p.493, p.503.

10) 기존엔 노드와 엣지, 주체와 장의 관계를 각각 논했다. 하지만 ‘노드, 엣지, 장’을 함께 논하며 연결이론을 입체적으로 다루었다. 이를 다음의 발표에서 처음 언급했고, 본고에서도 그 제안을 따른다. 김덕삼, 「초연결사회의 실존적 위기와 세계시민성의 진화: 인문학적 연결이론을 통한 반려 시민성의 제안」, pp.21-37.

11) 김덕삼, 「인문지리학자의 ‘장소’와 ‘경험’에 대한 도가적 접근: 제프 말파스와 노장 사상을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33 (2019), pp.351-379.

‘장소’로 변화시킨다.

둘째, 도가 철학과 기(氣)의 흐름으로 본 노드와 엿지의 역동성이다. 도가 철학, 특히 노장사상(老莊思想)은 연결이론을 ‘기의 이합집산(離合集散)’과 ‘상반상성(相反相成)’의 원리로 보완하며 존재의 역동성을 부여한다.¹²⁾ 장자(莊子)는 존재의 “생명은 기의 응집(聚)이며 죽음은 기의 확산(散)”이라고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삶도 죽음의 무리이고, 죽음 역시 삶의 시작이니, 누가 그 규율을 알겠나! 인간의 살아 있음은 기의 모임이고, (氣가) 모인즉 살아 있음이 되고, 흩어진즉 죽음이 된다. 만약 죽음과 살아 있음이 (하나의) 무리라면, 내게 또 어떤 환난이 있을까! 그러므로 만물은 하나이다.¹³⁾

이는 연결이론의 ‘노드 = 응집된 기, 엿지 = 흐르는 기’ 모델과 구조적으로 상응한다. 인간의 신체는 우주적 에너지인 기의 흐름 속에 잠시 형태를 취한 정거장과 같으며, 이는 현대 과학의 원자적 관점에서 인간이 공기와 대기의 원소를 끊임없이 교환하는 ‘응축된 덩어리’라는 통찰과도 일치한다.¹⁴⁾

또한, 노자가 강조한 상반상성(相反相成)의 논리는 유(有)와 무(無), 자아와 타자, 인간과 비인간이 대립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존재하게 하고, 완성하는 상보적 파트너임을 일깨워 준다.¹⁵⁾ 이는 인간중심주

12) 김덕삼, 「장(場)과 장(場)이론에 대한 『장자』에서의 분석과 확장」, 『중국학논총』 73 (2021), pp.51-75.

13) 莊子, 郭慶藩 撰, 『莊子集釋』(全4冊), 知北遊(北京: 中華書局, 1995), p.733, “生也死之徒, 死也生之始, 孰知其紀! 人之生, 氣之聚也; 聚則爲生, 散則爲死. 若死生爲徒, 吾又何患! 故萬物一也.”

14) 이는 앞서 거론한 『원자, 인간을 완성하다』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 있다. 기를 원자로 바꾼다면 통한다. 나이가 톰 올리버의 주장도 마찬가지이다. “독립된 자아라는 주관적인 환상을 깨고 세상에 미치는 우리의 영향을 책임질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외부에서 음식과 공기를 받아들이며, 이를 통해 인간은 존재한다고 지적한다(톰 올리버,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권은현 옮김 (서울: 로크미디어, 2022), p.284).

15) 김덕삼, 「상생의 노자적 해석과 실천」, 『대순사상논총』 14 (2002), pp.407-428; 老子, 朱謙之 撰, 『老子校釋』, 2장 (北京: 中華書局, 2000), pp.9-13.

의의 허상을 깨고, 만물이 하나의 도(道) 안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장자의 만물일체(萬物一體) 인식으로 확장된다.

주체는 ‘장’에 의해 만들어지며 장이 다르면 주체의 모습도 달라지듯, 도가적 사유는 주체와 장의 상관성 속에서 존재의 본질을 파악한다. 따라서 존재는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우주 전체의 에너지 네트워크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연결 노드’이며, 이러한 존재론적 논리는 초연결사회의 공존 문명을 지탱하는 핵심 윤리가 된다.

셋째, 불교 연기론과 관계 존재론의 현대적 재해석이다. 연결 중심 존재론은 동양 철학의 정수인 불교의 연기론(緣起論)을 통해 강력한 사상적 정당성을 확보한다.¹⁶⁾ 연기론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므로 저것이 생긴다”라는 원리를 통해 존재의 철저한 상호의존성과 인과적 연결망을 설명한다.¹⁷⁾ 이는 존재가 고정불변한 실체로서 자성(自性)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관계적 조건(緣) 속에서만 일시적으로 현현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연결이론은 이러한 고대의 연기 사상을 현대 네트워크 과학의 언어로 재해석하여, ‘연기(緣起) = 연결 구조’로 만든다. 인문학적 연결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타자의 고통이나 기쁨은 나와 분리된 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연결망을 타고 전이되는 나의 존재론적 사건이다. 불교의 인과론에 기초한 ‘원인의 원인’과 ‘결과의 결과’를 탐구하는 이러한 사고는 현상의 기저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관계를 통찰하며, 이는 곧 반려 시민성이 지향하는 공감적 연대의 기초가 된다. 나아가 모든 존재가 하나의 거대한 ‘인다라망(因陀羅網)’처럼 꿰뚫려 있다는 자각은 현대 초연결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근원적인 인문학

16) 마스터니 후미오, 『불교개론』, 이원섭 옮김 (서울: 현암사, 2022), p.47.

17) 《Access to Insight (BCBS Edition)》, 『Assutavā Sutta: Uninstructed (1)』 (SN 12.61), trans. Thanissaro Bhikkhu, PTS S ii 94, CDB i 595(<https://www.accesstosight.org/tipitaka/sn/sn12/sn12.061.than.html>, 2025. 12. 20. 검색).

적 토대라 말할 수 있겠다.

넷째, ‘반려적 존재(Companion Being)’로서의 자각과 휴머니티의 확장이다. 연결이론에 기초한 반려 시민성은 인간이 분리된 주체라는 주관적 환상에서 벗어나, 만물과 실시간으로 원자와 정보를 교환하며 살아가는 ‘반려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자각하는 지점에서 완성된다.

현대 생물학적·물리학적 연구가 입증하듯, 인간은 평생 수십 톤의 음식과 공기를 섭취하며 외부 물질과 끊임없이 원자를 교환하는 존재 이므로,¹⁸⁾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짓는 것은 어찌면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존재론적 사실은 자아라는 근본적인 사물이 없으며, 자아는 끊임없이 변하고 맥락에 의존하는 특징들의 다발일 뿐이라는 ‘무아(無我)의 연결망’을 증명한다.¹⁹⁾

이러한 존재론적 성찰은 휴머니티(Humanity)의 개념을 인간 중 내부의 배타적 가치에서 우주 공동체로 확장한다. 장자가 “저것이 아니면 내가 있을 수 없고, 내가 아니면 취할 바가 없다”라고 설파했듯,²⁰⁾ ‘자아’와 ‘타자’는 근원적으로 얽혀 있는 ‘운명 공동체’이다. 반려 시민은 이러한 얽힘의 실재를 수용하여, 타인의 고통을 나의 ‘반려 부위’에 난 상처로 느끼는 존재론적 공감을 실천한다.

결국 반려 시민성의 존재론적 기반은 만물이 하나의 거대한 신경망처럼 ‘연결’되어 ‘조화’를 이루는 ‘자연스러운 얽힘’에 대한 신뢰 위에 세워지며, 이는 기술 결정론에 함몰되지 않고 미래 문명의 평화로운 공존을 이끄는 지표가 된다.

18) 톰 울리머,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p.284; 커트 스테이저, 『원자, 인간을 완성하다』, p.134.

19) 마크 시더리츠·에반 톰슨·단 자하비, 『자아와 무아: 분석철학과 현상학 그리고 인도철학으로부터의 사색』, 이산 동광·김태수 옮김 (서울: 씨아이알, 2022).

20) 莊子, 郭慶藩 撰, 『莊子集釋』(全4冊), 齊物論 (北京: 中華書局, 1995), p.66, “物無非彼, 物無非是. 自彼則不見, 自是則知之. 故曰彼出於是, 是亦因彼.”

2. 반려 시민성의 개념 구조

반려 시민성은 근대적 자아의 고립된 환상을 깨고, 만물이 실시간으로 원자와 정보를 교환하며 살아가는 상호의존적 존재임을 자각하는 데서 출발한다. 이는 기존의 ‘인간 중심 시민성’에서 벗어나 ‘관계 중심 시민성’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인류 문명의 기술적 발전과 공간의 확장 속에서 시민성의 정의는 함께 진화해 왔다. 예를 들면, 앞서 잠시 언급한 도시 및 국가 시민성이 있다. 고대 도시국가에서 시작하여 근대 국민국가 체제에 이르기까지, 시민성은 특정 영토와 권리를 공유하는 인간 집단에 국한되었다. 이러한 시민성은 진화한다. 그래서 제시된 것이 글로벌 시민성이다. 시민성은 현대에 이르러 국경을 넘어 인류 전체를 하나의 도덕 공동체로 보는 세계시민주의로 확장되었다. 이는 우주적 시민성까지 확장된다.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동물, 인공물(AI 등 기술), 그리고 우주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적 공동체인 ‘우주 공동체’로 포용한다. 이는 ‘포괄적 원(circle of inclusion)’의 의미를 다층적이고 복합적으로 확장하는 과정에 자리한다.²¹⁾

지금까지 논한 것을 토대로, 반려 시민성의 구조적 모델로서 앞서 언급한 ‘노드-엣지-장(Node-Edge-Field)’을 반려 시민성의 존재론적 기반에 기초하여 생각할 수 있겠다. 즉, 존재를 ‘개별 실체’보다 ‘연결 구조’로 파악하여, ‘노드-엣지-장’의 구성 요소로 접근하는 것이다.

먼저 노드(Node, 개별 존재)는 사람, 미생물, 사물, AI, 데이터 등 연결망에서 독립된 각각의 객체를 의미한다. 도가 철학에서는 이를 ‘응집된 기(氣)’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은 엣지(Edge, 관계 구조)이다. 노드들 사이의 상호작용, 정보의 흐름, 감정적 유대 등 관계의 방향과 강도를 나타낸다. 이는 도가에서 말하는 ‘흐르는 기(氣)’이자, 불교 연

21) 강남순, 『코즈모폴리타니즘이란 무엇인가: 함께 살아감의 철학, 세계시민주의』 (파주: 동녘, 2022), p.85.

기론의 핵심인 상호의존적 조건(緣)이다. 끝으로 장(Field, 연결 환경)이다. 노드와 엣지가 상호작용하는 전체적인 ‘장’이자 구조적 맥락이다. 주체는 자신이 처한 장의 규칙과 가치에 구속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장을 변화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럼, ‘노드-엣지-장’의 구조적 모델에서 각각의 ‘노드’, ‘엣지’, ‘장’에 근거하여, 반려 시민이 실천해야 할 윤리적 책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²²⁾

첫째, ‘노드’에 기초한 존재 책임(Existence Responsibility)이다. 나라는 ‘노드’는 타자와의 관계 밖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책임이다. 자신의 존재 자체가 우주적 기의 흐름 속에 잠시 머무는 정거장임을 자각하고, 나의 작은 행위가 전체 네트워크에 미칠 나비효과와 영향을 성찰하는 것이다.

둘째, ‘엣지’에 근거한 관계 책임(Relationship Responsibility)이다. 노드와 노드를 잇는 ‘엣지’의 질을 관리하는 책임이다. 타자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공감하고, 대립이 아닌 상반상성(相反相成)의 원리에 따라 서로를 존재하게 하는 상보적 파트너로 대우하며 연대하는 실천을 의미한다.

셋째, ‘장’에 근거한 구조 책임(Structural Responsibility)이다. 개별 존재를 넘어 연결 환경인 ‘장’ 전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책임이다. 이는 문제의 표면적 현상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얽힌 복합적인 관계망인 ‘원인의 원인’을 탐구하고 사회적·생태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포함한다.

이러한 반려 시민성은 모든 존재가 하나의 거대한 ‘신경망’이나 ‘우주적 신체’의 일부임을 자각하고, 타인을 ‘나의 반려 부위’로 대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미래 문명의 핵심적 윤리 패러다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22) ‘노드, 엣지, 장’으로 연결이론을 입체적으로 논한 것처럼, 해결 방안도 이에 맞춰 ‘존재, 관계, 구조’적 책임으로 처음 제안했다. 본고에서는 그 제안을 따라 논의를 발전시키려 한다. 김덕삼, 「초연결사회의 실존적 위기와 세계시민성의 진화: 인문학적 연결이론을 통한 반려 시민성의 제안」, pp.21-37.

III. 초연결사회와 재난공동체 윤리

1. 초연결사회와 재난의 네트워크적 성격

21세기 인류가 마주한 가장 근본적인 문명적 변화는 정보통신기술(ICT)의 비약적 발전을 통한 ‘초연결사회’로의 진입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인간은 더 이상 독립된 개체가 아니다. 인간은 사람, 사물, 자연, 우주, 심지어 인간이 만든 인공물과도 실시간으로 얽혀 있는 ‘초’ 연결의 일부로 존재한다. 자연스레 인류가 직면한 재난은 공동체 전체의 운명으로 전이되며, 이로 인해 인류는 ‘재난공동체’라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초연결사회와 재난의 연결에 대하여 조금 더 알아보겠다.

첫째, 초연결사회의 재난은 ‘연쇄적 시스템 붕괴(Cascading Failures)’의 위험을 내포한다. 연결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현대 문명은 무수한 노드와 엣지로 촘촘하게 엮여 있어, 단 한 지점의 고장이나 오류도 나비 효과처럼 전체의 망으로 급격히 확산할 가능성이 커졌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의 금융 위기가 글로벌 시장 전체의 붕괴로 이어지거나, 국지적인 전력망 및 인터넷 인프라의 마비가 전 지구적 물류와 통신 시스템의 마비로 전이되는 현상은 초연결망이 지닌 구조적 취약성을 보여준다. 이는 연결의 밀도가 높아질수록 잠재적 위험 또한 비례하여 증폭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둘째, 현대의 재난은 복잡적이고 비선형적인 확산 구조를 지닌다. 과거의 재난이 물리적 거리라는 장벽에 의해 제어될 수 있었다면, 초연결사회에서는 ‘초’ 연결을 통해 질병뿐만 아니라, 정보의 왜곡과 공포가 실시간으로 전파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러한 성격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사례이다. 나아가 앞으로도 얼마든지 바이러스의 생물학적 확산과 알고리즘에 의한 ‘가짜 뉴스(fake news)’의 확산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인류를 거대한 위기 속에 몰아넣을 수도 있다. 니얼 퍼거슨(Niall Ferguson)은 이러한 네트워크적 연결이 심화할수록, 리스크를 완화하는 종래의 방식으로는 이러한 일들에 대처하기 힘든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²³⁾

셋째, 초연결사회의 재난은 ‘갑자기 투명해진 거대한 숲’의 은유로 설명될 수 있다. 과거에는 각자의 영역을 명확히 가르고 숨을 곳이 있었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연결의 끈이 숲 전체를 엮고 있어 나의 작은 진동이 숲 반대편까지 고스란히 전달된다. 예를 들어, 한 지역의 경제적 탐욕이 전 지구적 자원 고갈과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는 인과관계는 존재의 근원적 얽힘을 증명한다. 또한 인류가 편리함을 위해 소비하고 무심히 버린 플라스틱이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다시 우리의 식탁으로 돌아오고, 매주 신용카드 한 장 분량(약 5g)의 미세플라스틱을 인간이 섭취하고 있다는 보도는 인간의 신체가 외부 세계와 끊임없이 원자와 정보를 교환하는 연결의 존재이며,²⁴⁾ 우주적 에너지인 기(氣)가 잠시 머무는 정거장이라는 관계 존재론적 사실을 증명한다.

23) 니얼 퍼거슨, 『뚝 재앙의 정치학: 전 지구적 재앙은 인류에게 무엇을 남기는가』, 홍기빈 옮김 (파주: 21세기북스, 2021). 이 밖에 책에서는 본고에서와 같이 재앙을 네트워크 구조와 관계로 설명했다. “전파와 확산의 정도는 구조가 결정한다. 어떤 전염병이 퍼지는 속도는 그 병 자체의 전염력만큼이나 그것에 노출된 인간집단의 네트워크 구조와 관계를 갖는다. 고도로 연결된 허브들이 소수 존재할 경우, 병이 느리게 퍼져나가는 초기 단계가 지나면 기하급수적인 양상으로 감염자가 늘어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재생산지수—한 사람의 감염자가 몇 명의 새로운 감염자를 낳는지를 나타내는 지수—가 1 이상이면 질병은 급속히 퍼져나가고, 1보다 작다면 점차 사라지는 쪽으로 진행된다. 질병의 태생적인 전염력만큼이나 재생산 지수를 결정 짓는 것은 그 질병에 감염되는 네트워크의 구조다.” 같은 책, pp.201-202.

24) 2019년 세계자연기금(WWF)의 연구에서, 인간은 매주 신용카드 한 장 분량(약 5그램)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는 내용이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사회적 화제가 되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나중에 이것은 과장된 연구 결과로 알려졌다. 이 연구가 과장되었다고 해서, 인간의 몸에 축적된 미세플라스틱의 존재와 그 위험을 상쇄할 수 없다. 잘 알고 있듯이 지금 태평양에는 한반도 크기의 7배에서 15배 규모의 쓰레기 섬이 있고, 여기의 미세플라스틱은 바다뿐만 아니라 대기로 올라가 인류와 지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초연결사회에서 ‘연결’은 재난의 강력한 매개체이자 형성 원인인 동시에, 그 해결을 위한 유일한 열쇠다. 재난공동체는 타자의 고통이 네트워크를 타고 나의 위기로 전이되는 운명 공동체의 성격을 갖는다. 이는 인류에게 단편적 대응을 넘어 시스템 전체를 조망하는 ‘입체적 사고’와 ‘구조적 책임’을 요구한다. 따라서 초연결사회의 재난은 단순히 기술적 결함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맺고 있는 관계의 본질과 상호의존성을 인문학적으로 성찰하는 지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2. 재난공동체의 윤리적 요구, 타자의 고통은 나의 문제

초연결사회가 직면한 재난의 네트워크적 성격은 우리에게 기존의 개별적·원자적 윤리관을 넘어 근본적인 윤리적 전회를 요구한다. 인류가 동일한 연결망 위에서 운명을 공유하는 ‘재난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은 이제 도덕적 수사를 넘어 실존적 필연성이 되었다.²⁵⁾ 이러한 맥락에서 반려 시민성이 지향하는 핵심 윤리는 “타자의 고통은 곧 나의 문제”라는 상호의존적 인식에서 출발한다.

근대적 정의관이 개별 ‘노드’의 행위와 그 결과에만 집중하여 단죄하는 방식이었다면, 초연결사회의 ‘반려 시민 윤리’는 그 행위를 가능하게 한 구조적 환경과 복합적인 관계망 전체를 시야에 넣는다. 예를 들어, 1935년 뉴욕의 피오렐로 라과디아(Fiorello La Guardia) 판사의 판결은 문제의 표면적 현상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얽힌 ‘원인의 원인’을 묻고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적 실천의 중요성을 일깨운다.²⁶⁾

25) Dugsam Kim · Taesoo Kim, “Applying Daoist Thoughts,” pp.1-17.

26) 그의 판결은 책임 윤리의 전형을 보여준다. 그는 배고픈 손자들을 위해 빵을 훔친 노인에게, 법에 따라 벌금을 선고하면서도, 동시에 “이런 빈곤한 이웃이 생기도록 방관한 우리 모두의 죄”를 묻어 법정에서 있던 시민 모두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김승섭, 『아름이 길이 되려면: 정의로운 건강을 찾아 질병의 사회적 책임을 묻다』 (서울: 동아시아, 2017), pp.59-61.

같은 이유로 재난공동체에서 ‘타자의 고통은 곧 나의 문제’라는 인식은 단순한 도덕적 수사가 아닌 실존을 위한 인식이 된다. 몽골 초원의 사막화라는 ‘타자의 고통’은 연결망을 타고 한반도로 건너와 황사와 대기오염도를 높이는 ‘재난’으로 직결된다. 따라서 반려 시민은 지구 생태계의 훼손을 외부의 풍경이 아니라 ‘나의 반려 부위’에 난 상처로 느끼는 존재론적 공감을 실천해야 한다. 이러한 공감은 타자를 돕는 것이 결국 전체 시스템의 붕괴를 막고 나 자신을 보호하는 가장 지혜로운 생존 전략임을 자각하게 한다.

동양의 관계 존재론에 기초한 공존의 당위성은 앞서 논의한 불교의 연기론이나 도가의 만물일체 사상에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한 곳에 상처가 나면 온몸이 통증을 느끼는 것과 같이, 초연결망의 한 ‘노드’에서 발생한 위기는 ‘엣지’를 타고 전체 네트워크로 전이되어 결국 ‘나’의 안위를 위협하게 된다는 인식의 전환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타자를 돕는 것은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전체 시스템의 붕괴를 막고 나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로운 생존 전략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반려 시민성은 인간이라는 좁은 범주를 넘어 인간이 만든 인공물까지 포함하는 비인간 존재(AI, 기술적 도구, 자연 생태계)까지 공존의 파트너로 포용하는 휴머니티의 획기적인 확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²⁷⁾

초연결사회에서의 시민성은 특정 국가의 권리를 향유하는 자격을 넘어, 지구 생태계와 기술 문명의 지속 가능성을 관리하는 구조적 책임으로 확장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갑자기 투명해진 거대한 숲’ 속에 살고 있으며, 나(노드)의 작은 진동(엣지)이 전체 숲(장)의 조화를 깨뜨릴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²⁸⁾ 타인(노드)의 고통에 공감하

27) 김덕삼·이경자, 「공동체에서 인간과 인공물의 연결에 대한 검토와 제안: 도교적 이론과 사례를 참고하여」, 『가족과 커뮤니티』 9 (2024), pp.271-295.

28) 물론 나의 작은 진동이 꼭 부정적 영향만 미치는 것은 아니다. 긍정적 영향을 미

고 연대하는 것(엣지)은 이 거대한 ‘우주 공동체’(장)가 건강하게 작동하게 하며, 이것이 바로 반려 시민이 실천해야 할 공존 윤리가 된다.

결론적으로, 재난공동체가 요구하는 윤리는 ‘각자도생’의 경쟁 구조에서 ‘상생과 보은’의 연결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 타자의 아픔을 나의 반려 부위의 상처로 인식할 때, 인류는 비로소 재난의 위협을 넘어 진정한 공존 문명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 반려 시민은 이러한 연결의 본질을 성찰하고, ‘원인의 원인’을 치유하는 구조적 실천을 통해 미래 문명의 핵심 주체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3. 휴머니티의 확장, 반려 관계의 형성과 공존

초연결사회가 요구하는 반려 시민성의 핵심은 근대 서구 문명의 근간이었던 인간중심주의에 대한 반성과 휴머니티의 지평 확장에 있다. 데카르트식 심신이원론에 기반한 근대적 인간관은 인간을 이성적 주체로, 자연과 동물을 단순한 ‘자동기계’로 격하시키며 착취와 통제의 대상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만물이 실시간으로 원자와 정보를 교환하며 얽혀 있는 초연결의 장에서 독립된 주체라는 인식은 ‘주관적 환상’에 불과하다.

인문학적 연결이론의 관점에서 휴머니티는 더 이상 인간 종 내부의 배타적 가치에 머물지 않는다. 도가의 ‘기의 이합집산’ 원리처럼, 인간의 신체는 우주적 에너지의 흐름 속에 잠시 형태를 취한 정거장과 같으며, 이는 현대 과학의 원자적 관점에서 인간이 공기의 응축된 덩어리라는 통찰과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반려 시민성이 지향하는 새로운 휴머니티는 인간과 비인간의 이분법적 경계를 허물고, 모든 존재를

치면서 장 전체를 바람직하게 이끄는 것도 있고, 꼭 필요하다. 본문에서는 ‘재난공동체’와 위협을 예방하려는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은 논하지 않고, 부정적 측면만 논하였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긍정적 측면을 논하며 희망적 가능성을 다루려 한다. 이러한 제안을 해준 심사위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상호의존적인 ‘반려적 존재’로 재정의하는 존재론적 전회를 전제한다.

휴머니티의 확장은 가장 먼저 자연 생태계와 동물 등 비인간 생명체와의 관계 회복으로 나타난다. 현대 생태학과 동물행동학은 물고기도 인간처럼 고통을 느끼고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며,²⁹⁾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경계가 고정된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우리가 타 종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단지 ‘노는 물(Field)’이 다르기 때문일 뿐이다.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생명망(혹은 기 또는 원자의 연결망) 속에 얽혀 있음을 알아야 한다.³⁰⁾

여기에 더하여 노자의 ‘도법자연(道法自然)’ 사상은 인간이 자연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스스로 그러함)를 본받아야 함을 역설한다.³¹⁾ 이는 반려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공존의 윤리를 제시한다. 예를 들어 우리 몸에 우리가 버린 미세플라스틱이 축적되고 있다는 사실은 환경 파괴가 타자의 문제가 아닌 나의 신체적 위기임을 증명한다. 그렇다면 모든 존재를 나의 ‘반려 부위’로 대할 때, 이 거대한 우주적 신체는 비로소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다.

지금까지 고전적 연결의 사고에서 반려 관계의 형성과 공존을 논했다면, 이제는 현대 사회에 가장 민감하게 작동하는 인간이 만든 ‘인공물’과 그 ‘기술의 발전’ 측면에서 논해 보겠다. 초연결사회의 가장 특징적인 지점은 휴머니티의 확장 영역에 인공지능(AI)과 같은 인간이 만든 기술적 존재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29)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물고기는… 조용하고 무표정하고 다리가 없으며, 그저 멀뚱멀뚱하게 바라보기만 한다.’ 낚시바늘에 꿰여 물 밖으로 끌려나올 때 비명을 지르지도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는다. 항상 휘둥그렇게 뜨고 있는 눈은 물고기들이 아무것도 느끼지 않을 거라는 오해를 부풀린다. 하지만 물고기들은 물속에 잠겨 있기 때문에 눈꺼풀이 필요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 우리가 물고기에게 공감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는 ‘노는 물’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낚시바늘에 꿰여 물 밖으로 끌려 나온 물고기가 울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물속에 빠졌을 때 울지 않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같다.” 조너선 벨컴, 『물고기는 알고 있다』, 양병찬 옮김 (서울: 에이도스, 2017), p.316.

30) 톰 올리버,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pp.283-284.

31) 老子, 朱謙之 撰, 『老子校釋』, 25장 (北京: 中華書局, 2000), p.103.

산업혁명이 인간의 육체 능력에 도전했다면, AI의 등장은 인류 고유의 영역이라 여겼던 ‘생각하는 능력’에 본질적인 물음을 던진다. 여기서 인문학적 연결이론은 과격적으로 기술이 인간을 위협하는 이질적 존재가 아니라, 인간과 함께 새로운 기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기술적 반려 노드’로 수용할 것을 제안한다.

고대 인류의 발자취에서 예를 들어 보면, 도교의 ‘외단(外丹)’ 전통이 외부 물질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려 했던 것처럼, 혹은 기계를 이용하여 인간의 힘을 대신하려 한 것처럼, 나아가 트랜스휴머니즘(transhumanism) 논의로 확장되면서, 인류 진화의 새로운 양상으로 이해될 수 있다.³²⁾ 이러한 진화의 과정에서, 반려 시민은 기술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배척하는 대신, 알고리즘의 윤리적 투명성을 감시하고 AI의 편향성을 교정하는 등 상호보완적 공진화(coevolution)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휴머니티 확장의 최종 단계는 국경과 지구라는 물리적 경계를 넘어 우주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이다. 과거 도보 이동 시절의 제한된 공간이, 현대의 초연결망으로 지구촌 전체를 묶었으며, 이제 그 지평은 태양계와 우주 전체로 확장되고 있다.³³⁾ 이는 단순한 물리적 점유의 확장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과 책임의 범위가 우주적 차원으로 넓어짐을 의미한다. 김민기의 ‘작은 연못’이란 노래 가사처럼, 작은 연못에서 서로 싸우다 한 마리가 죽어 결국 나머지도 죽고, 모두가 파괴되고 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연결의 거미줄을 감지하고 우주적 질서 안에서 상생하는 ‘절제된 확장’을 이룩해야 한다. 『노자』 29장의 ‘천하신기(天下神器)’처럼,³⁴⁾ 세계는 함

32) 예를 들면 현대의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나 뉴럴링크 기술 등을 말할 수 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뉴럴링크(Neuralink)는 이미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2023년 5월에 인간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 진행되고 있다.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 FDA 승인, 왜 2년이나 걸렸나?」, 《디지털투데이》(<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8082>, 2026. 2. 2. 검색).

33) 김성환 외, 『장소철학 1』 (파주: 서광사, 2020), pp.257-276.

부로 다룰 수 없는 신령스러운 그릇이며, 인간은 그 안에서 ‘이천하 관천하(以天下觀天下)’의 시각을 견지해야 한다.³⁵⁾ 『장자』 맨 첫머리에 나오는 봉새(鵬)가 구만리 창공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듯, 반려 시민은 협소한 국가 이기주의를 넘어 인류 전체와 미래 세대, 그리고 비인간 존재를 포괄하는 코즈모폴리터니즘을 실천해야 한다. 이처럼 확장된 휴머니티는 초연결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의 가장 본질적인 생존 전략이자 미래 문명의 핵심 윤리가 될 것이다.

4. ‘장’의 변화 전략과 공존 문명의 실천

연결이론의 관점에서 존재는 독립된 실체가 아니라 그를 둘러싼 ‘장’과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구성되는 관계적 산물이다. 장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넘어 주체의 사고와 감정, 선택을 규정하는 사회적 구조, 문화적 담론, 기술적 조건, 그리고 시간적 맥락을 모두 포괄하는 환경적 총체이다.³⁶⁾

그렇다면, 연결의 관점에서도 새로운 변화는 개별 ‘노드’의 도덕적 결단이나, ‘연결’의 ‘엣지’에 대한 자각에 더하여 노드와 엣지를 아우른 ‘장’의 전체적인 재구성을 전제해야 한다. 장자(莊子)는 추수(秋水) 편에서 ‘우물 안 개구리(井蛙)’의 비유를 통해, 누구나 자신이 속한 장에 구속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현대의 초연결사회 역시 알고리즘이 만든 ‘필터 버블(Filter Bubble)’이나 ‘확증 편향’이라는 보이지 않는 장에 갇혀 타자와의 진정한 연결을 저해하고 있다.

반려 시민성의 실천은 자신이 처한 장의 한계를 자각하는 ‘회의’에

34) 老子, 朱謙之 撰, 『老子校釋』, 29장 (北京: 中華書局, 2000), p.115.

35) 老子, 朱謙之 撰, 『老子校釋』, 54장 (北京: 中華書局, 2000), p.216, “몸으로 몸을 보고, 집으로 집을 보고, 향으로 향을 보고, 나라로 나라를 보고, 천하로 천하를 본다 以身觀身, 以家觀家, 以鄉觀鄉, 以國觀國, 以天下觀天下.”

36) 김덕삼, 『변화와 장의 탐구: 중국의 사람·사회·문화를 중심으로』 (과주: 한국학술정보, 2022), pp.11-12.

서 출발하여, 기존의 장을 깨트리고 더 넓은 지평을 향해 나아가는 ‘상상’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리가 서로를 타인이 아닌 ‘나의 반려 부위’로 대할 때, 이 거대한 우주적 신체는 비로소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장의 성격을 ‘각자도생(各自圖生)’에서 ‘상생’의 네트워크로 전환하는 실천이 될 것이다.

‘각자도생’은 제각기 살길을 도모하는 ‘개별 행위자의 자기구제 행동’이다. 이는 공동체적 보호 기능이 약화된 오늘날 각자가 생존을 도모하는 상황에 나타난다. 또한 근대 이후 신자유주의적 경쟁 질서 속에서 개인이 생존의 책임을 전적으로 사유화하는 사회적·윤리적 상태로서, ‘주체’와 ‘장’의 관계에서 많은 문제를 ‘주체’에게 넘기는 지금의 사회 구조를 투영한다. 결국 공동체적 연대를 저해하고, 재난공동체의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이다.

각자도생은 유교적 상호책임 윤리 및 공공성의 전통과 긴장 관계를 형성하며, 사회적 신뢰와 자본의 약화를 초래하는 구조적 조건으로 작동한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생존 전략이 아니라, 후기 근대 사회에서 주체 형성과 관계성의 변형을 드러내는 중요한 지점이 된다.

본고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연대보다 본질적인 ‘연결’을 강조하며, ‘상생’을 주장한다. ‘연결’을 뒤흔드는 ‘각자도생’은 공동체의 파멸을 가져오고, 재난을 막기는커녕 공멸을 재촉할 것이다. ‘상생’은 단순한 공존을 넘어, 상호의존적 주체들이 공동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사회철학적 원리로 해석할 수 있다.³⁷⁾ 이는 갈등이 없는 수동적 공존이 아니라, 상호의존적 주체들이 서로의 존재를 낳아주고 보완하며 끊임없이 변하는 역동적 생명력의 순환 속에 있다. 상생의 네트워크는 상극적 경쟁 구조 속에서 켜켜이 쌓인 원한을 풀어내는 ‘해원(解冤)’의 과정을 거쳐, 서로가 서로를 존재의 조건으로 긍정하고 보답하는 ‘보

37) 김덕삼, 「상생의 노자적 해석과 실천」, 『대순사상논총』 14 (2002), pp.407-428.

은(報恩)’의 관계로 나아갈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이러한 도정에서 ‘반려 시민’은 원한과 갈등의 ‘상극의 장’을 ‘보은과 상생의 장’으로 전환하며, 재난공동체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이처럼 각자도생의 시대에 상생의 네트워크는 주체들을 경쟁적 개체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 행위자로 재구성하며, 분절된 생존 전략을 넘어 공동체의 재생산을 가능케 하는 규범적 전환으로 자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초연결사회의 재난은 복잡한 연결망 속에서 증폭되는 네트워크적 현상으로 이에 대한 대응은 ‘각자도생’이나 ‘책임의 개인화’라는 근대적 프레임을 넘어 구조적 차원의 ‘장의 변화’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장’은 중첩의 성질을 갖는다. 그러므로 사건의 1차적 원인에만 집중하기보다 그 현상을 가능하게 한 ‘원인의 원인’을 탐구하는 접근으로 2차, 3차의 원인, 장의 중첩을 상정하여 그 배후에 얽힌 복합적인 관계망을 치유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미세플라스틱의 순환은 ‘갑자기 투명해진 거대한 숲’의 은유처럼, 나의 작은 진동이 전체 숲의 조화를 깨뜨리고 결국 나에게 되돌아오는 초연결망의 구조적 특징을 드러낸다. 이는 문제의 표면적 현상보다 기저의 ‘원인의 원인’을 탐구하고, 각자도생의 경쟁적 장을 상생의 네트워크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구조적 책임의 당위성을 부여한다. 결국 미세플라스틱 사례는 우리가 거대한 ‘우주적 신체’의 일부임을 깨닫게 함으로써, 만물과 하나 되어 소통하는 우주적 시민성으로 나아가는 존재론적 이정표가 된다.

그러므로 반려 시민은 타자의 고통을 구조적 모순의 산물로 인식하고, 장의 결함(예를 들면 불평등, 생태적 파괴 등)을 공동으로 개선하려는 주체적 참여를 실천해야 한다. 이러한 실천은 단순히 선한 의지

를 표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웃풋된 결과가 다시 선한 인풋으로 작용하는 순환 구조를 장 속에서 구축하는 작업의 과정에 위치한다.

이처럼 공존 문명을 지탱하는 반려 시민성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결의 본질적 가치를 이해하고 내면화하는 ‘연결’에 대한 이해를 통해 길러진다. 공동체 구성원이 전체 네트워크의 상호의존성을 정서적·인지적으로 자각함으로써, 나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이 분리되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므로 ‘반려 시민’은 인간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자연, 동물, 인공물, 그리고 우주 만물이 하나의 ‘기의 흐름’ 속에 얽혀 있음을 긍정하는 ‘우주적 시민성’을 실현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너와 나의 각각의 장에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를 포괄한 상위의 장에서 문제를 보는, 즉 장의 중첩을 통해 ‘너와 나를 아우르는 상위의 장’을 상정할 때, 비로소 자국 이기주의의 경계는 희미해지고, 모든 존재가 상생하며 평화를 누리는 진정한 공존 문명의 장이 펼쳐지게 될 것을 기대할 수 있다.³⁸⁾ 이러한 ‘거시적 연대’는 초연결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가 취해야 할 근본적인 생존 전략이자 인문학적 실천이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21세기 초연결사회가 직면한 문명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반려 시민성’과 그 철학적 토대인 ‘연결이론’을 고찰하였다. 연구의 핵심은 인간을 독립된 개체로 보던 근대적 주체관에서 벗어나, 모든 존재가 ‘노드, 엣지, 장’의 구조 속에서 심층적으로

38) 김덕삼, 『변화와 장의 탐구: 중국의 사람·사회·문화를 중심으로』, pp.11-12, p.109.

연결되어 있다는 관계 존재론적 전환에 있다. 이러한 존재론적 기반은 동양의 불교 연기론과 도가의 기(氣) 사상을 통해 현대 네트워크 과학의 언어로 재해석되었다. 존재는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관계적 조건 속에서 끊임없이 생성·소멸하는 흐름이며, 자아와 타자는 상반상성(相反相成)의 원리에 따라 서로를 완성하는 반력적 파트너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인간중심주의의 허상을 깨고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공물, 인간과 우주가 하나의 우주 공동체로서 공존해야 한다는 인문학적 당위성을 제공한다.

초연결사회의 재난은 나비효과처럼 연결망 전체로 확산하는 네트워크적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재난공동체’의 현실 속에서 본 연구가 제시한 ‘반력 시민성’은 단순한 권리의 보유가 아닌, 연결의 책임을 다하는 주체적 시민 모델이다. 이러한 반력 시민성은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책임 구조를 통해 구체화 된다. 즉, ‘노드에 기초한 존재의 책임’, ‘옛지에 기초한 관계의 책임’, ‘장에 기초한 구조의 책임’이다. 이러한 책임 윤리는 인류가 기술에 종속되지 않고, 휴머니티의 지평을 확장하여 기술적 존재의 산물인 인공물과 자연까지 공존의 영역으로 포용하는 길을 제시한다.

결론적으로 반력 시민성의 실천은 개인의 도덕적 결단을 넘어 ‘장’의 변화로 나아가야 한다. 사람은 자신이 처한 장의 가치와 규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장을 ‘각자도생’의 경쟁 구조에서 ‘상생과 보은’의 연결 구조로 전환하는 노력이 일어나야 한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 고찰한 ‘연결’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필요하고, 나아가 기술 결정론에 함몰되지 않도록 ‘왜 연결하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인문학적’ 성찰이 요청된다.

우리는 이제 ‘갑자기 투명해진 거대한 숲’ 속에서 서로의 진동을 느끼며 살아가게 되었다. 본고에서 제시한 반력 시민성은 이 얽힘의 시

대에 인류가 취해야 할 근원적인 생존 전략이자 윤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렇다면 재난공동체의 인류는 적극적으로 연결의 의미를 인식하고, 책임을 다하는 반려 시민의 실천을 통해, 재난의 위기를 넘어 진정한 공존 문명의 시대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老子, 朱謙之 撰, 『老子校釋』, 北京: 中華書局, 2000.
- 莊子, 郭慶藩 撰, 『莊子集釋』(全4冊), 北京: 中華書局, 1995.
- 강남순, 『코즈모폴리타니즘이란 무엇인가: 함께 살아감의 철학, 세계시민 주의』, 파주: 동녘, 2022.
- 김덕삼, 「상생의 노자적 해석과 실천」, 『대순사상논총』 14, 2002.
- , 「인문지리학자의 ‘장소’와 ‘경험’에 대한 도가적 접근: 제프 말과 스와 노장사상을 중심으로」, 『대순사상논총』 33, 2019.
<https://doi.org/10.25050/jdaos.2019.33.0.351>
- , 「장(場)과 장(場)이론에 대한 『장자』에서의 분석과 확장」, 『중국학 논총』 73, 2021.
<https://doi.org/10.26585/chlab.2021..73.003>
- , 『변화와 장의 탐구: 중국의 사람·사회·문화를 중심으로』, 파주: 한국학술정보, 2022.
- , 「재난공동체와 영성 교육」, 『한국학연구』 85, 2023.
<https://doi.org/10.17790/kors.2023.6.85.29>
- , 「연결이론의 정립과 활용 방향 초탐(初探)」, 『원불교사상과 종교 문화』 102, 2024.
- , 「초연결사회의 실존적 위기와 세계시민성의 진화: 인문학적 연결 이론을 통한 반려 시민성의 제안」, 『경희대학교 세계시민성·평화연구센터 창립학술대회 자료집』, 2026.
- 김덕삼 외, 『연결하는 인간: 초연결사회의 새로운 지평』, 서울: 문사철, 2025.
- 김덕삼·이경자, 「공동체에서 인간과 인공물의 연결에 대한 검토와 제안: 도교적 이론과 사례를 참고하여」, 『가족과 커뮤니티』 9, 2024.
<https://doi.org/10.23259/famcom.2024..9.010>
- , 「재난공동체에서의 ‘연결’과 ‘연결 교육」, 『한국학연구』 94, 2025.
<https://doi.org/10.17790/kors.2025.9.94.39>

- 김성환 외, 『장소철학 1』, 파주: 서광사, 2020.
- 김승섭, 『아픔이 길이 되려면: 정의로운 건강을 찾아 질병의 사회적 책임을 묻다』, 서울: 동아시아, 2017.
- 김태수 · 김덕삼, 「초연결사회의 지성사적 조망: 근대시민사회와 초연결사회 관련 문제를 중심으로」, 『인문과 예술』 17, 2024.
<https://doi.org/10.35442/hna.2024..17.211>
- 니얼 퍼거슨, 『뚝 재앙의 정치학: 전 지구적 재앙은 인류에게 무엇을 남기는가』, 홍기빈 옮김, 파주: 21세기북스, 2021.
- 마스터니 후미오, 『불교개론』, 이원섭 옮김, 서울: 현암사, 2022.
- 마크 시더리츠 · 에반 톰슨 · 단 자하비, 『자아와 무아: 분석철학과 현상학 그리고 인도철학으로부터의 사색』, 이산 동광 · 김태수 옮김, 서울: 씨아이알, 2022.
- 박지웅, 「초연결사회 이전의 기존 연결사회의 기원과 사회성격」, 『사회경제평론』 32-3, 2019.
<https://doi.org/10.17964/rses.2019.32.3.1>
- 삼정KPMG 경제연구원,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사회, 변화할 미래산업」, 『삼정KPMG 경제연구원』, 2017.
- 에드워드 S. 케이시, 『장소의 운명: 철학의 역사』, 박성관 옮김, 서울: 에코리브르, 2016.
- 조너선 뱅크, 『물고기는 알고 있다』, 양병찬 옮김, 서울: 에이도스, 2017.
- 커트 스테이지, 『원자, 인간을 완성하다』, 김학영 옮김, 서울: 반니, 2014.
- 톰 올리버, 『우리는 연결되어 있다』, 권은현 옮김, 서울: 로크미디어, 2022.
- 《디지털투데이》 <https://www.digitaltoday.co.kr>
- 《Access to Insight (BCBS Edition)》 <https://www.accesstoinsight.org>
- Dugsam Kim, Taesoo Kim, “Applying Daoist Thoughts of Interconnectedness to Disaster Communities: Through the Lenses of Diaspora and Pluralism,” *Religions* 15:8, 2024.
- _____, “Addressing Hyperconnected Society’s Challenges Through Laozi-Zhuangzi Thought,” *Religions* 16:6, 2025.

■ Abstract

Ethics of Companion Citizenship and the Practice of Coexistence: From Individual Survival to a Network of Sangsaeng

Kim Dug-sam

Professor, College of Liberal Arts for SangSaeng, Daejin University

This study proposes “companion citizenship” as a vital alternative to overcome the civilizational crises of the 21st-century hyperconnected society, grounded in the philosophical framework of “Humanistic Connectivity Theory.” In an era whe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link everything in real-time, humans are no longer isolated, atomistic individuals; instead, they have become members of a global “disaster community” sharing collective threats such as climate change and pandemics. Conventional human-centric and nation-state-based citizenship models have reached their limits in addressing these interconnected global challenges.

To address this, the research reinterprets Eastern relational philosophies—including Daoist “Qi” and Buddhist “Dependent Origination”—through the modern network paradigm of “Node-Edge-Field.” This approach facilitates a shift toward a relational ontology, where existence is defined not by individual substance but by connective structures. Based on this model, this

study identifies three levels of ethical responsibility for the companion citizen: “Existence Responsibility” (Node), “Relationship Responsibility” (Edge), and “Structural Responsibility” (Field).

Furthermore, the article advocates for the expansion of humanity beyond the human species to include ecological systems and technological entities like Artificial Intelligence (AI) as “companion beings.” By recognizing the suffering of the “Other” transmitted through hyperconnected networks as one’s own, humanity can evolve toward “cosmic citizenship.” Ultimately, the practice of companion citizenship aims for a “Field Change” strategy, transforming competitive environments into structures of mutual prosperity and coexistence. This serves as a fundamental survival strategy and humanistic guide for a sustainable future civilization.

Keywords: Hyperconnected Society, Connectivity Theory, Companion Citizenship, Disaster Community, Node-Edge-Field, Cosmic Citizenship, Relational Ontology